

단순반복 쳇바퀴... '기계인간' 방불

정보사회의 실상 10

미래주역 여성은 고달프다

온라인 단말기를 하루 6천번 이상 두드리는 은행원 윤순미(21)씨는 요즘 자신이 '기계인간'로 느껴진다.

윤씨가 하루에 처리하는 업무는 보통 2백여건. 공과금 납부 마감일이나 월말엔 5백여건으로 갑절 이상이나 늘어나 화장실 다녀올 시간도 없을 정도이다.

"하루종일 키보드 치고, 돈 세어 내주고 받는 단순한 일을 계속하노라면 제가 기계인지, 컴퓨터가 기계인지 혼동됩니다. 마치 고객을 가득 실은 컨베이어벨트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정보화 사회가 되면 성격이 꼼꼼하고 손놀림이 섬세한 여성들이 정보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토플러의 분홍빛 예언과는 달리 사무자동화기술이 본격 도입되면서 여성의 업무는 점점 단순·세분화되고, 작업내 위계 서열화와 탈숙련화 현상 등 사무자



전산화로 일처리가 신속해지면서 은행창구 여행원들은 폭주하는 업무에 시달린다. 이런 사무자동화의 그늘을 견여내기 위해선 직원의 증원, 휴식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곽윤섭 기자>

은행업무 5배늘어 "화장실도 못가"비명 통제는 주로 남성 일...새로운 성별위계

전산입력 분야등 하청화...노동조건 크게 악화

동화의 그늘이 여성을 비인간화시키고 있다.

사무자동화기술을 도입한 기업마다 책임자급 전산원은 대부분 남성이고, 여성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는 단순업무를 맡아보는 하위직에 몰려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의 하층부를 두텁게 떠받치고 있다.

80년대 전산화가 급속하게 이뤄진 금융산업쪽이 이런 피라미드 현상이 가장 두드러져 국민은행의 경우 수작업을 하던 76년의 고졸 여행원 비율이 36%였으나 전산화가 이뤄진 87년엔 54.3%를 차지했다.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사무자동화에 따른 여성노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논문(이화여대 대학원·여성학)을 발표한 백월순(30·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씨는 "전산화 이후 여성의 업무량이 수작업 때보다 5백70%나 늘어났고, '컴퓨터 통제자=남성' '단순 이용자=여성'이라는 새로운 성별 위계를 만드는 등 사무자동화가 여성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무자동화가 여성의 삶과 노동에 끼치는 낙관적 견해에 경종을 울렸다'.

신택은행노동조합 정책2실장 김영주씨도 "신택은행의 경우 은행업무가 완전 전산화된 88년을 기점으로 90년말까지 점포수

를 67개나 늘렸어도 여행원은 늘리지 않아 창구 여행원 1인당 하루 4백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대형 슈퍼마켓 등 바코드로 계산하는 유통업계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하루 처리량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코스코의 한 여직원(19)은 "바코드가 설치되기 전보다 2~3배 정도 계산처리를 하는 것 같다"면서 "눈이 몹시 아프고, 두통·생리통을 호소하는 동료도 많다"고 한다.

사무자동화의 그늘이 나타나고 있는 또다른 분야는 여성들이 일당제로 일하는 컴퓨터 용역업이다.

노동조합이 생길 때마다 폐업을 거듭하던 맥스텍사가 87년 말 완전 폐업한 뒤 관리자들이 책상 1개, 전화 1대를 갖춘 용역사무실을 내면서 비슷비슷한 용역회사들이 20~30군데 생겼다. 일당제 노동으로 노조결성방지를 노리는 용역회사의 대거 출현은 정상고용이 아니라 임시·일용 노동화로 여성에게 사실상의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

이들 용역회사의 재하청업체 역할을 하는 정보처리업체·전산학원까지 합하면 용역전문회사는 1백여곳에 이른다.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전산입력 분야의 여성 4백~5백여명

이 용역회사로부터 전화로 일거리를 연락받아 일하는데, 보통 1만~2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용역회사로부터 재하청받은 정보처리업체·전산학원이 일을 연결해 줄 땐 일당을 6대4, 5대5로 나누기도 한다.

올해로 경력 8년째인 이순진(28)씨는 "89년 회사가 폐업하면서 용역일을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가 개별적으로 일을 배정해주기 때문에 월수입도 일정치 않고, 언제 일이 끊길지 몰라 늘 불안하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들어 컴퓨터·전산학원이 수없이 늘어나 3~6개월 과정의 전산입력, 사무자동화기술교육을 받은 고졸 이상의 여성인력이 많이 쏟아져나오면서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회장 한명희) 실무간사 왕인순씨는 "전화한 통화에 밤중이 매달린 컴퓨터용역일은 '여성 일의 저임·하청화'를 막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개발원 장성자 자원개발실장은 "전산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전산인력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정보사회의 먹이사슬 구조 때문에 하위직에 몰려 있는 여성인력을 상위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연숙 기자>